

한 눈으로 보는 주간 경제			23~27일
코스피지수	2049.93	↓	-41.59
코스닥지수	626.93	↓	-22.14
환율 (원·달러)	1198.80	↑	+10.3

지수는 27일 종가, 등락은 주간 집계.

비즈 프리즘 | 차세대 TV전쟁 - QLED 명칭 사용 논쟁

“해외선 ‘QLED’ 문제없어” vs “논점 흐린다”

〈삼성전자〉

〈LG전자〉

삼성 “해외 주요 국가 광고심의 통과”
美에선 QLED 비방광고 중단 권고
LG “공정위 판단과 무관” 비판



차세대 TV를 두고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QLED 명칭을 둘러싼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다. 사진은 삼성전자 QLED 8K TV. 사진제공 | 삼성전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차세대 TV 전쟁이 갈수록 더 치열해지고 있다. LG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삼성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한 데 대해, 삼성이 “해외에선 ‘QLED’ 명칭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고, LG가 다시 공정위 판단과는 무관한 ‘논점 흐리기’라고 비판하면서 신경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삼성은 2017년 QLED TV를 처음 출시한 뒤 미국과 영국, 호주에서 광고심의 기관을 통해 ‘QLED’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이미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QLED가 전기발광(자발광) 방식 디스플레이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논쟁이 있었지만, 각 국 광고심의기관 모두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는 설명이다. 삼성에 따르면 2017년 호주 광고심의

기구(ACB)는 전기발광 방식만 QLED로 볼 수 없다며 타사의 허위광고 주장을 기각했다. 당시 삼성은 퀀텀닷 기술인 광발광과 전기발광 2가지 방식이 있으며, 전기발광만 QLED라는 명확한 정의는 없다고 소명했다. 영국의 광고표준기구(ASA)도 2018년 QLED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소비자 오인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에선 타사가 ‘삼성 QLED는 일반적인 LED TV일 뿐이라며 QLED라는 명칭은 소비자 오인을 초래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라고 비방광고한 데 대해, 전미광고국(NAD)이 2018년 ‘QLED라는 명칭과 관련 소비자 오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광고를 중단하라는 권고조치를 내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QLED라는 명칭은 이미 해외 주요 국가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는데, 국내에서 뒤늦게 논

란이 제기된 것은 유감이다”고 말했다. LG는 이에 대해 ‘논점 흐리기’라며 강하게 맞받아쳤다. LG전자는 앞서 19일 ‘삼성 QLED TV’는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고 있다며 삼성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LG는 디스플레이 업계 뿐 아니라 한국 특허청도 “QLED라는 기술용어는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한다”고 정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해외에서 QLED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주로 광고 심의에 관한 것일 뿐 공정위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LG전자 관계자는 “규제체계와 광고내용, 소비자인식이 서로 다른 별개의 사례를 끌어들이며 논점을 흐리지 말고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근기자 dionys@donga.com



“레드 킹크랩 초특가에 사세요”
홈플러스가 11월 27일까지 러시아산 레드 킹크랩을 9만9900원에 판매한다. 레드 킹크랩은 킹크랩 중에서도 맛이 뛰어나고 값이 비싸 ‘킹크랩의 제왕’이라 불린다. 즉석 찜 서비스를 제공해 전용 용기에 담아 판매하며 온라인 주문 시에도 찜 여부를 선택하면 추가 비용 없이 배송 받을 수 있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 홈플러스

SKT, T맵 기반 물류·배송 기능 강화

SK텔레콤은 기업 물류와 배송을 돕기 위해 T맵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확대·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중 경유지 기능 개선과 이미지 경로 API 신설, TMS API 기능 고도화 등이다. 먼저 경유지 수를 기존 30개에서 100개로 확대했고, 경로가 표시된 지도 이미지를 자동 캡처해 화면에 보여주는 기능을 추가했다. 또 여러 대의 배송 차량에 다수의 배송지를 최적으로 배치하는 솔루션 TMS를 고도화 해 차량 10대, 배송지 100곳 계산 시 기존 3분이 소요되던 알고리즘을 1분 내로 단축했다. SK텔레콤은 또 ‘파도스트릭’과 ‘화물GO’ 등 중소기업과 협력한 T맵 API 기반 신규 서비스도 출시했다.

김명근기자

‘박찬호 도시락·조세호빵’...먹는 재미 UP!

셀럽의 친숙한 이미지로 먹거리 공략
편의점 업계가 셀러브리티(유명 인사)와 손잡고 먹거리 신상품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정 유명 인사와 먹거리 상품의 이미지를 결합해 소비자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려는 전략이다. GS25는 26일 필요 이상의 말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신조어인 ‘투머치 토크(too much talker)’로 인기를 얻고 있

는 전 코리안특급 메이저리거 박찬호의 이미지를 살린 ‘투머치 시리즈’를 출시했다. 투머치 찬많은도시락, 투머치 참치왕김밥, 투머치 더블버거, 투머치 샤인머스캣 등으로 구성했다. 투머치에서 연상되듯 푸짐한 양을 내세웠다. 대표 상품인 투머치 찬많은도시락은 GS25 도시락 중 최다 반찬 수인 11종에 용량도 20% 늘어난 500g이 특징이다. CU는 26일 방송인 조세호와 손잡고 ‘조

세호빵 시리즈’를 내놓았다. 조세호와 호빵을 결합해 이름 지었다. 양념갈비, 닭강정, 제주흑돼지, 단팔호두, 고구마치즈 등을 시킨 호빵 트렌드인 단팔 대신 요리형을 선보인 게 특징이다. 소비자에게 골라 먹는 재미를 줄 수 있는 다양한 토핑의 호빵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조세호를 모델로 발탁했다는 게 CU 측 설명이다. 권오상 GS25 도시락 상품기획자는 “유명인과 제휴해 출시한 먹거리 신상품이 맛의 차별화뿐 아니라 상품별 스토리 소비자에게 재미있는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iy@donga.com



CU의 ‘조세호빵 시리즈’(위)와 GS25의 ‘박찬호 투머치 시리즈’. 사진제공 | CU·GS25

LGU+ “연내 5G 수출할 것” 구글·넷플릭스 등 협력 강화

LG유플러스는 하현희 부회장이 26일과 27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구글과 넷플릭스,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 주요 경영진과 만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단기 협력을 위한 다양한 교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사를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에게 단기 교재나 기출문제집으로 짧은 시간 안에 합격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클라우드계 임 협력을 바탕으로 5G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다양한 사업에서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구글과의 미팅에선 공동 진행 중인 콘텐츠 분야 투자 등에 대한 진행사항을 점검했다. 하 부회장은 “통신사 혼자만으론 불가능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회사들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개발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LG유플러스

의 전략 방향이다”며 “구글, 넷플릭스, 엔비디아 등 글로벌 톱 플레이어들은 유플러스의 5G 성장 잠재력을 인정하고 성공 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 부회장은 현지 특파원들과 만나 연내에 국내 통신사 최초로 5G 콘텐츠와 솔루션을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명근기자

편집 | 신하늬 기자 mylhuki@donga.com



하현희 LG유플러스 부회장(오른쪽)이 젠슨 황 엔비디아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와 엔비디아 사옥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 | LG유플러스



교육·퍼즐

에듀윌

문제풀이 중심 기출문제집 교재 출간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취업 대세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주목!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란 한국사 학습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 시험으로 역사 지식의 이해부터 연대기의 파악, 역사 상황 및 쟁점의 인식, 역사 자료 분석 등 다양한 출제 유형을 선보이고 있다.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7급공무원, 경찰공무원 등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2021년부터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는 등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단기 합격을 위한 다양한 교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사를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에게 단기 교재나 기출문제집으로 짧은 시간 안에 합격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에듀윌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제 풀이에 초점을 맞춘 기출문제집 고급·중급 교재를 출간했다. 해당 교재는 8개분의 시험 문제를 실어 현재 실력과 기출문제



의 유형 및 출제 경향에 대해 낱말이 파악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에 특별 부록으로 최근 2년 동안 2~3회 출제됐던 기출 유형 중 엄선된 50개의 빈출 유형으로 만든 기출 모의고사와 근현대사를 완벽히 정리한 필기노트인 ‘근현대사 극복노트’를 함께 첨부했다. 추가로 에듀윌이 출간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관련 도서 중 주목해 볼 만한 교재는 바로 ‘끝장교과서’다. 한국사 초보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깊이 있는 이론 중심의 교재다. 특별 부록으로는 시험에 나오는 주제만을 모은 ‘읽다 보니 1급·합격노트’와 총 23강의 무료 강의까지도 제공한다.

1~9까지의 숫자를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문제

6	3			1		9		
		5	3		1		2	
9				6			8	
	6			1			2	
		7	6		3	4		
	2			7			1	
	9			3			5	
2			7		6	9		
1		3					6	7

5		9				8		6
				9			1	7
1	6			8				9
	2			4				3
		4	5			3	2	
		5			2			4
4				5			9	1
		6	1		2			
3		5				6		2

■ 스도쿠정답

4	9	2	4	5	6	8	1	3
1	8	6	9	8	2	7	5	2
5	4	8	2	1	9	6	2	7
9	1	5	6	2	4	8	2	1
8	6	7	1	2	9	2	1	5
3	2	7	8	1	5	6	9	4
4	8	5	9	2	1	2	7	6
2	9	1	6	1	6	1	6	1
6	9	1	2	7	8	2	1	9
2	2	9	8	6	4	5	1	1
4	8	5	2	1	9	6	2	7
1	6	8	9	5	2	2	8	4
7	4	1	6	2	8	1	5	9
8	9	2	3	1	5	4	7	6
5	1	6	2	4	9	1	2	8
6	2	4	5	8	1	7	9	1
1	9	7	1	9	6	8	4	2
6	1	8	4	2	2	1	8	9